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오늘 개막

오는 24일까지 불갑사 관광지 일원서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 주제

영광군은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이라는 주제로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지난해 문화관광육성축제 및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흥행력이 입증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가을 꽃 축제다.

올해 역시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인도공주와 경은스님의 설화를 주제로 한 공연과 상사화창극 등으로 축제의 주제를 부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 개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

고 축제장 내 워터 조성과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관광객들이 축제장에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축제 첫날 18일 오전 10시부터 삼정사 주차장에서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 행사를 시작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상사화 꽃길 걷기' 및 개막식 주제공연으로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특히 19일에는 KBS 1TV 장수 인기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이 특집으로 방송된다. 이날 방송은 현지 생중계로 진행되며 생생한 축제 현장의 모습은 물론 영광군 관광지 및 특산물,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밤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EDM 공연을 새롭게 선보이고 야간경관 및 포토존 조성으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색적인 축제가 되도록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을 꽃 축제라 지리 잡은 이번 불갑산상사화축제가 단순한 꽃 축제라는 한계를 넘어 낮에

는 꽃의 아름다움을 밤에는 가을 밤의 정서와 감동을 선사하는 종합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상사화와 함께 가을의 황홀한 정취를 느끼고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

순천시는 먼지와 소음이 없는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17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구매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기업·법인·단체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전기차 통합포털인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22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고,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사는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를 전 기지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지역 토산어종 동자개 방류

광양시는 친환경 자연생태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최근 어린 동자개가 주로 서식하는 수량이 풍부한 저수지 6곳에(광양읍 2곳, 옥룡·옥곡 각 1곳, 진월면 2곳)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어린 동자개가 훗날 풍성한 어족 자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3만 4천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동자개는 저수지나 하천 등 자연에서 2~3년 정도 성장하여 전장 15~17cm의

크기가 되면 어른 동자개가 된다. 동자개는 등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조용한 아침에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빠각빠각' 하는 소리를 내어 지역에선 일명 '빠가사리'로 불리고 있다.

또 동자개는 우리 지역 고유 담수어류로서 환경적인 적응력이 뛰어나 물흐름이 느리거나 거의 멈춘 상태에 있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하천, 강 등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어종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곡성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최종 선정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 '곡성 스테이션 1928' 조성

곡성군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총 50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다. 총 4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는 24건의 사업 신청서가 제

출되며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남도는 서면과 발표심사 등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했다.

곡성군은 폐교된 오곡초등학교를 지역 자원 연계의 새로운 거점이자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곡성스테이션 1928'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공모에 선정됐다.

스테이션 1928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스테이션'과 오곡초등학교가 개교한 해인 '1928'을 조합한 것이다. 핵심 콘셉트는 주민과 관광객이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교육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건물을 숙박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지역특화자원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곡성군의 핵심 시책인 교

육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인생학교, 농촌학교, 미디어학교 등을 운영하고, 청년협동조합 등 시설 운영 조직을 육성하게 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지난 77년간 지역민과 함께 해 온 오곡초등학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차마을 등 인접 관광지는 물론 산림, 장미, 로즈카카오 등 특화자원을 연계해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재생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보성군,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보성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철우 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0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군정 핵심 시책을 발굴하는 이번 신규시책 보고회는 민선7기 군정 슬로건인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건설을 목표로, 국정 주요 시책인 100대 국정 과제 및 전남도 역점시책인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한 6대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과제 대응과 정부 정책 연계에 중점을 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시책 49

건, 계속사업 15건 등 총 64건이 발굴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375억 원이다.

눈에 띄는 시책으로는 ▲행복그린 보성600 사업 ▲별교문화복합센터 건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이촌뉴딜 300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재난안전사고 ZERO와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 타당성과 사업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보성군은 이번 신규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0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철우 군수는 "정부 정책과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하면서도 보성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발굴한 신규시책은 보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여수시, '도서지역 생명과학 캠프' 운영

여수시가 도서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생명과학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월호동 경호초등학교와 남면 여남초등학교 학생 57명이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토양 속 생태계 여행', '생명의 신비' 등 농생명과학 분야 실습이 주를 이룬다. '벽골제 탐방', '생명들의 외침' 등 공동체

활동과 청소년 직업 탐색 특강도 마련돼 있다.

오는 11월에는 초등학교 '우주과학 캠프'와 중학교 '생명과학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또래 간의 배려심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시·자문번호서)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